

해방의 길 A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신앙 목표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됨으로 가능해집니다.

새사람으로 살기 위한 해방의 길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하나님께서서는 죄의 제거의 길을 택하시질 않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을 택하셨습니다. 죄의 완전 제거는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의 삶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우리의 삶속에서 제거하시지 않으시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2 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몇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 첫째는

죄의 권세에게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은 죄는 유전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은 생물학적 용어이고 상속은 법적 용어입니다. 유전으로 물려 받은 것은 어떤 경우든지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의 의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노예제도의 폐지에 의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도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 :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7 But God be thanked, that ye were the servants of sin, but ye have obeyed from the heart that form of doctrine which was delivered you.

로마서 6 : 18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 Being then made free from sin, ye became the servants of righteousness.

우리가 아담의 원죄의 전가에 의해 죄의 종이 된 것은 죄의 유전에 의해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법적 상태의 변화에 의해 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로 인해 죄가 법적으로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죄의 권세(=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적 절차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인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닌 상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죄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양태는 본질이 아니라 지배자로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의 상속은 실질의 이전이 아니라 지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실질의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2.1 인간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실질의 이전이 아니라 지배라는 것을 인간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이나 타락 후나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워 질 수 있다는 것은 타락이 본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에 본질적 변화가 왔으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이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아담은 더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 죄나 마귀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나 마귀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신것입니다. 타락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타락이 본성에 변화를 미친 것이라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릴 수도 없고, 해방되어 새사람으로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타락이 본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음으로 인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타락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절을 찾고 가십시오.

창 9: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타락은 인간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소멸을 가져 온 것이 아니고, 지배자의 변화가 다가 왔습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에 들어 오니 죄로 인한 부패가 발생했습니다.

2.2 죄의 내재(로마서 7 :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가 유전이 아니라 지배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5 :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7] For if by one man's offence death reigned by one; much more they which receive abundance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shall reign in life by one, Jesus Christ.)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왕으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후손에게 넘겨준 육은 유전에 의해 후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내재하면서 권세를 행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언제 생기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죄없이 생긴 그 영혼에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발생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 죄로의 오염의 상태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먼저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책을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결과 오염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Synod of Dort 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죄의 내재가 아담의 후손 안에 실질의 이전으로 인한 유전이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일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검은 머리를 유전으로 받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일평생 검은 머리로 살아야 하는 것, 푸른 눈을 유전으로 받아 태어난 사람은 일평생 푸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함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죄가 실질의 이전으로 인한, 유전이라 한다면 죄를 일평생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죄의 내재가 유전이라면 죄에서의 해방은 없습니다. 죄의 내재가 아담이 후손에게 넘겨준 실질의 이전이라면 해방의 길은 없습니다. **옛사람에서 해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말은,** 죄는 유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3 우리는 죄의 내재는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영혼(heart)에 죄소를 두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24 에서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heart)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영혼에 들어 오니 정욕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2 에서는 이 Heart 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our hearts)에 주셨느니라 .

같은 heart 인데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영혼에 들어 오니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heart 인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주인이 변한 것입니다.

heart 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heart 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heart 의 본질이 죄의 본질(sinful nature)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heart 를 지배하면 Heart 는 옛사람의 인격의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heart 를 성령이 지배하면 Heart 는 새사람의 인격의 속성인 사랑과 희락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차게 됩니다.

죄가 heart 를 지배하면 Heart 의 속성은 flesh 로 변하며, heart 를 성령이 지배하면 Heart 는 사랑과 희락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차게 된다. 다만 성령이 heart 를 지배하는 과정이 점진적일 뿐입니다.

2.4 이렇게 말하면 죄의 내재로 인하여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니, 인간은 자유 의지를 활용하여 구원의 공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와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냉장고가 좋아도 전기가 안들어 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끊어진 전기를 이어 주시는 분이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2.5 또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죄의 내재가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 후에도 왜 육신의 죽음이 있느냐고 물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길,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니고,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인해 참믿음과 쪽정이가 가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아 영적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선, 육신의 죽음은 변화한 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3.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제거를 택하시지 않고 해방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싸움이 없습니다.우리는 믿음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제거가 아닌 죄에서의 해방을 택하셨기 때문에, 해방된 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성령충만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라는 이 막강한 적의 공격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망의 세력을 짓밟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로마서 8 :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으리라

죄에서 해방된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으로 살 때는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4.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배하는 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죄가 사람의 본질을 죄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벗어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의해 죄의 지배를 벗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터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조적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말한 바대로 **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System, order, power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습니다. 중생하고 난 후에도 옛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아래 살다가 턱걸이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4.1 죄와 사망의 법의 작동 원리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기 위해선 세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와 율법과 옛사람입니다.

이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율법에 대해 공부를 하면,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1 Cor. 15:56 (KJV)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strength of sin is the law.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사람에게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권세가 율법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죄의 권세가 된다는 것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정욕이 생깁니다(롬 7: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인간이 타락한 성품, 다시 말하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본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율법을 어긴 저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죄를 진 자는 죽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율법의 판결에 의해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타락한 성품인 옛사람을 이용하여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고소하여 죽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1] For sin, taking occasion by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by it slew me.

죄가 기회를 잡아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율법으로 송사하여 주께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옛사람과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옛사람과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참다운 해방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해방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가져 왔는가를 공부해 보십시오.

다음시간으로 계속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